

'정신대 보상' 일본서 첫공판

92.6.2. 822면

한국인 41명 소송 대표3명 통한의 법정 증언 일정부 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맞대응

【도쿄=김효순 특파원】 한국인 옛 종군위안부·군인·군속 등 4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소송 첫 공판이 1일 오전 도쿄지방법원소 713호 법정에서 열려 원고 대표 3인의 증언과 원고측 변호인단의 1회 구두변론을 들었다. <관련기사 3면>

한반도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

의 전후책임을 묻는 본격적 심판장이 될 이 공판에서 일본 정부측은 청구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내 정면 대결을 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원고측 변호인단장인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는 이 재판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구미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

수한 재판이라고 지적하고, 전쟁기간중 한 민족, 인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박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도상의 죄'가 적용돼야 하며, 시급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의 발언에 대해 "일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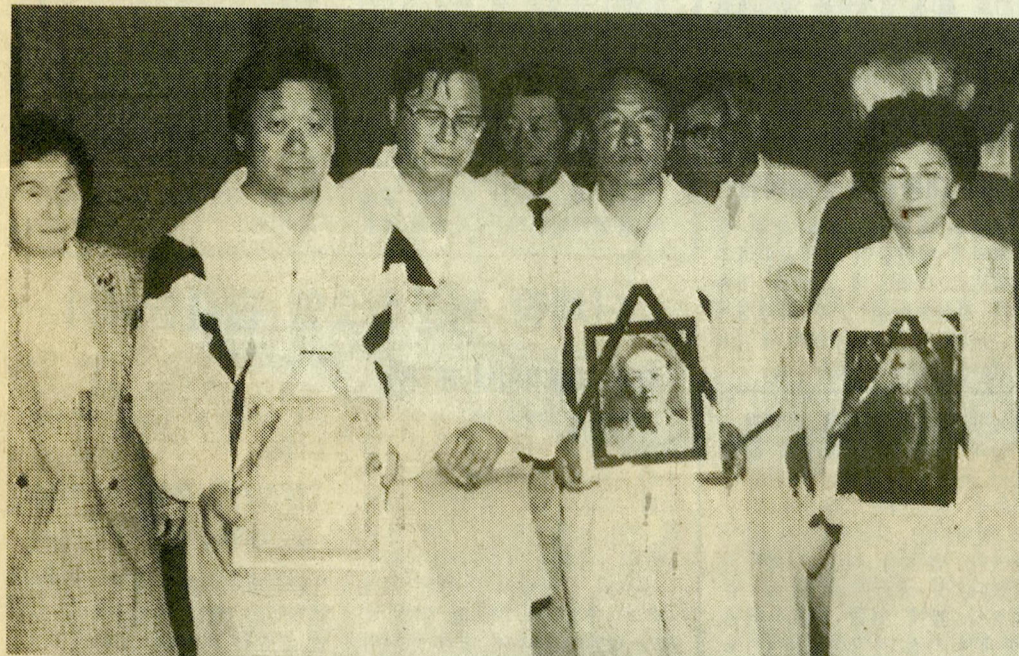
가와 함께 재판의 당사자이기도 한 수상이 제3자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물의를 바로잡는 것은 앞으로 일본의 발전방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회 변론에 앞서 41명의 원고중 이번 공판에 참석한 19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이 대표로 의견진술을 했다. 종군위안부로 끌려갔을 당시 일본군이 붙여준 '가네다 기미코'란 이름으로 증언을 한 옛 종군위안부는 공장에 가면 돈을 번다는 말에 속아서 군대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처음에 군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가슴을 총검으로 찔려 20일 동안 군위생소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 대표인 김종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자신이 5살의 어린아이였을 때 강제연행된 부친의 생사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통보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본이 전후보상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면 세계적으로 비인도적 국가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유족들은 이 역사의 증인이며, 이 역사를 영원히 소멸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쟁의 희생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전후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9월14일로 결정됐다. 한편 원고단은 2일 오후 수상

부를 방문해 일본 정부에 시급한 보상실시를 진정할 예정이다. 수 상부는 원고단 가운데 옛 종군위안부들로부터 당시의 사정을 듣기로 했다.

원고단과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앞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저녁에는 도쿄의 간다판세홀에서 보고집회를 가졌다.



한국인 종군위안부와 징병·징용자 등 4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소송 첫 공판이 열린 1일 오전 도쿄지방법원소 앞에서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희생자의 영정을 들고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AP 연합>